韓國漢字音과 萬葉音假名
o段母音의 音聲資質

宋　　敏

1. 序　　言
2. o段音假名의 流動性과 甲乙類의 性格
3. 韓國漢字音과 o段母音 甲乙類
4. o段母音 甲乙類의 音聲資質
5. 結　　語

1. 序　　言

史的音韻論 硏究는 일반적으로 文獻에 나타나는 書寫體系를 통해서 행해질 수 밖에 없지만, 어느 時代의 書寫體系를 아무리 精密하게 分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具體的 音聲資質에 基盤을 두고 있지 않는 限, 그 結論이 그대로 音韻論的인 것이라고 信賴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문에, 音聲情報 그 자체가 音韻層位의 體系를 전적으로 左右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時代의 音韻體系를 論議할 때, 우선적으로 要求되는 資料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직스러운 音聲層位의 情報가 아닐 수 없다.

史的音韻論에 有用한 資料라면 물론 發音式 綴字(pronunciation-spelling)로 이루어진 文獻이어야 한다. 外國文字에 의한 轉寫資料가 音韻論硏究에 자주 動員되는 것도, 거기에는 音聲層位의 現實的 情報가 反映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轉寫資料 중에는 機械的인 綴字式 發音(spelling-pronunciaion)으로 이루어진 文獻도 있다. 그러한 轉寫資料는 根本的으로 保守的인 文獻의 書寫體系와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못 利用했다가는 "不明한 것을 그보다 더 不明한 것으로"(obscurum per obscurius) 說明하려는 愚를 犯할 수도 있다. 그러나 轉寫資料는 그 性格上, 音聲의 聽覺的, 音響的, 知覺的 特質을 反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音韻論的 分析에 흔히 援用되어 온 것이다.

소위 上代特殊假名遣이라고도 불리우는 上代日本語[1]의 書寫體系, 곧 萬葉

1) 日本語史의 時代區分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本稿에서는 比較的 一般的인 區分을 따르기로 한다. 그 內容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古代日本語(645年 이전) : 飛鳥時代 이전
上代日本語(645年~794年) : 飛鳥·奈良時代
中古日本語(794年~1086年) : 平安時代
中世日本語(1086年~1603年) : 院政·鎌倉·室町時代

假名[2]은 漢字의 音을 利用한 音假名과 漢字의 訓을 利用한 訓假名으로 크게 區分되는데, 그중에서도 音假名 漢字는 그 起源이 發音式 綴字에 가까운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上代日本語의 音韻論 硏究에 없어서는 안될 資料로 重視되어 왔다. 音節을 基本單位로 삼고 있는 이들 音假名 漢字 하나 하나를 切韻系 中古漢語[3] 再構音과 比較함으로써, 上代日本語의 音韻論的 再構는 刮目할만한 成果를 거두어 온 것이다. 上代日本語에는 五十音圖上의 i, e, o段 各音節에 서로 對立되는 甲乙類 두 系列의 表記區別이 存在하고 있어, 兩者가 서로 混用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橋本進吉교수가 確認해 낸 이래(橋本進吉 1942 등), 그러한 區別이 音聲實質上의 差異에서 緣由한 것임을 밝히게 된 것도 中古漢語再構音을 援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音聲層位의 表面的 情報에 너무 휘말린 나머지, 上代日本語의 音韻論的 硏究는 때때로 音價推定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도 있었으며, 그 때문에 上代日本語의 母音體系가 8母音體系[4]라는 速斷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過誤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몇 學者의 適切한 批判 있었으며, 그 결과 특히 70年代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5母音體系說(Lange 1973)과 6母音體系說(松本克己 1975 및 服部四郎 1976)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다만 後者

近世日本語(1603年~1868年) : 江戶時代
現代日本語(1868年 이후) : 明治時代 이후

이에 따라 本稿에서 上代日本語라 함은 大化의 改新이 始作된 때로부터 桓武天皇이 平安京으로 遷都하기 이전까지를 包括하는 時代의 日本語를 指稱하게 된다. 대체로 飛鳥·奈良時代에 該當되며, 文化史的으로는 白鳳·天平時代가 된다(宋敏 1977:11-17).

2) 萬葉假名의 內容이나 性格은 時代와 文獻에 따라 상당히 複雜하다. 그 名稱이 暗示하고 있는 것처럼 通俗的으로는 「萬葉集」의 日本語 書寫體系를 뜻하지만, 專門的으로는 奈良時代의 모든 資料에 나타나는 日本語 部分의 書寫體系를 包括하는 것이 보통이다. 代表的인 資料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推古期(592~628)의 遺文들, 金石文들, 「古事記」(712), 「日本書紀」(720), 「萬葉集」, 「常陸風土記」(718), 「播磨風土記」(716頃), 「出雲風土記」(733), 肥前風土記」(732~740頃), 「豐後風土記」(732~740頃), 風土記의 逸文들, 佛足石歌(753 또는 761 이후), 正倉院에서 發見된 2通의 假名文書(761)와 그밖의 文書들, 「續日本紀」(794~797)와 거기에 收錄된 宣命, 「延喜式」(927)에 收錄된 祝詞, 「新譯華嚴經音義私記」(794?), 「歌經標式」(772) 등등. 다만 推古期 遺文의 音假名중에는 後代의 文獻과 다른 用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다. 그 때문에 이들을 區別하여 다루는 수도 있다.

3) 中國語史의 時代區分은 다음을 따르기로 한다(牛島德次 1967:33).

太古漢語(前15世紀~前10世紀) : 殷代·西周
上古漢語(前7世紀~後4世紀) : 東周·春秋戰國·秦漢·三國
中古漢語(6世紀~10世紀) : 六朝·隋·唐
中世漢語(11世紀~16世紀) : 宋·元·明
近世漢語(17世紀~20世紀) : 淸·現代

4) 좀더 正確히 말하자면 8母音體系라는 名稱은 適合하지 않으며, 구태어 풀이하자면 8個의 母音이란 뜻이 될 것이다. 傳統的인 日本語 音韻史 論著에 體系란 術語가 나타나는 일은 별로 없으며, 간혹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構造主義的 槪念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에 속하는 두 學者의 主張도 그 理論的 背景이나 結論은 서로 다르다.[5] 따라서 上代日本語의 母音體系에 대한 結論은 아직도 여러가지라고 할 수 있다.

筆者 또한 i, e段 甲乙類의 區別은 音節主音의 音韻論的 對立으로 解釋되지 않으나, o段 甲乙類의 區別은 音節主音의 音韻論的 對立으로 解釋된다고 보고, 上代日本語는 6母音體系로 이루어져 있다는 見解를 開陳한 바 있다(宋敏 1975). 실상 乙類의 i, e는 自立形態素의 頭位 또는 軟口蓋音(k, g)이나 脣音(p, b, m) 이외의 子音 뒤에는 配分되는 일이 전혀 없어, 先行音의 環境에 극심한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機能負擔量 또한 아주 적다. 中古漢語音이나 기타의 音聲情報로 보더라도 乙類의 i, e는 二重母音으로 解釋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乙類의 o는 自立形態素의 頭位, 또는 脣音(p, b, m) 이나 脣音性 轉移音(w) 뒤에만 配分되는 일이 없을 뿐, 그밖의 모든 子音 뒤에 配分될 수 있기 때문에 機能負擔量도 매우 크다. 더구나 甲類의 o段 音節表記에 利用된 音假名 漢字의 中古漢語音은 대체로 後舌母音을 音節主音으로 하고 있으나, 乙類의 o段 音節表記에 利用된 音假名 漢字의 中古漢語音은 일반적으로 a類의 母音을 音節主音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이 일찍부터 밝혀진 바 있다(有坂秀世 1955:279-281). 대략 이상과 같은 音聲資質上의 特性과 기타의 形態論的 證據 등을 土臺로 하여 母音體系의 一般的인 類型을 考慮한다면, i, e段 甲乙類의 區別表記는 母音의 音韻論的 對立으로 理解되지 않는 대신, o段 甲乙類의 區別表記만은 母音의 音韻論的 對立으로 理解되어[6] 6母音體系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결국 上代日本語의 母音體系는 o段 甲乙類 區別表記의 音韻論的 解釋하나만으로도 그 主張이 크게 달라진다. Lange교수나 松本克己교수는 o段甲乙類의 區別을 音韻論的 對立으로 認定하지 않는 데 대하여[7] 服部四郎교수는 이를 音韻論的 對立으로 認定하는 것이다. 筆者가 o段甲乙類의 區別을 音韻論的 對立으로 解釋한 것은 形態論的 根據나 體系的 調和에도 關心을 두었지만, 그보다 앞서 萬葉假名 o段 甲乙類의 音假名漢字를 韓國漢字音[8]에 비추어 본

---

5) 두 學者의 音韻目錄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松本說 : i e ï a u o(松本克己 1975:149)
服部說 : i e ö a u o(服部四郎 1976:14)
松本克己교수는 i段 乙類의 母音만을 音韻으로 解釋하고 있는 反面, 服部四郎교수는 o段 乙類의 母音만을 音韻으로 解釋하고 있다. 따라서 兩者는 根本的으로 다른 結論을 提起한 것이다.

6) 그 結論은 根本的으로 服部四郎(1976)과 같은 것이다. 다만 筆者는 韓國漢字音이 中古漢語音 못지않게 o段 甲乙類의 對立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事實을 重視하였다.

7) 松本克己교수는 o段 甲乙類의 區別表記가 外國文字에 의한 書寫體系의 初期的 段階를 反映한 結果일 뿐, 日本語의 音韻論的 對立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松本克己 1975:145-146). 그러나 萬葉假名의 直接的인 基盤이 漢語라는 確證은 아직 없으므로, 萬葉假名이 中古漢語에 의한 書寫體系의 初期的 段階라고 斷定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8) 韓國漢字音은 訓民正音이 創製되고 나서도 한동안, 東國正韻式 人爲的 漢字音

결과, 그 甲乙類의 差異가 音聲資質上 中古漢語音 이상으로 分明하게 들어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o段 甲乙類의 區別表記에 관한 限, 韓國漢字音 쪽이 오히려 中古漢語 再構音보다 더 有用한 根據를 提供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日本學者들이 일찍부터 萬葉音假名의 音價推定過程에서 斷片的이긴 하지만, 韓國漢字音을 때때로 援用한 바가 없지 않으나(橋本進吉 1950, 有坂秀世 1955 등), 그 重要性을 明確하게 認識하지는 못한 듯하다.

이에 筆者는 o段 甲乙類의 音聲資質에 관한 限, 韓國漢字音에 대한 좀 더 具體的인 檢討가 必要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2. o段音假名의 流動性과 甲乙類의 性格

萬葉假名에 利用된 漢字는 時代와 文獻에 따라 그 目錄이 다를 뿐 아니라 同一한 漢字가 둘 또는 그 이상의 音節表記에 通用되는 등, 그 內容이나 性格이 결코 單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o段音節表記에 利用된 音假名만을 對象으로 하더라도 文獻에 따라 다음과 같은 多樣性을 보여준다. 對象文獻은 편의상 推古期遺文, 正倉院文書, 金石文, 「古事記」, 「日本書紀」, 「萬葉集」에 局限시킨다. 이들만으로도 모든 音假名을 網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音假名	推	正	金	記	紀	萬	備考
ko甲 古	○	○	○	○	○	○	
故		○	○	○	○	○	
高		○	○	○			
庫		○			○	○	
祜		○				○	
姑					○	○	
孤					○	○	
枯						○	
固					○		
顧					○		

에 밀려 文獻에 나타나지 않다가, 15世紀末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出現되기 始作한다. 「千手千眼觀自在菩薩大悲心陀羅尼經」(1476), 「救急簡易方」(1489),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1496) 및 「施食勸供諺解」(1496) 등이 그 先驅的 文獻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世紀에 들어서면 많은 文獻이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를 버리고 現實的 漢字音 表記로 轉換한다. 여기서 말하는 韓國漢字音은 原則的으로 15~16世紀의 文獻에 韓國文字로 記錄된 現實音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音의 歷史는 적어도 統一新羅 이전의 三國時代로 遡及된다. 그 形成過程으로 짐작하건데, 韓國漢字音은 漢語의 時代的, 地域的 背景에 따라 動搖를 거듭하다가 15세기말부터 文獻에 定着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河野六郎 1968, 朴炳采 1971). 따라서 本稿의 韓字音이란 術語는 경우에 따라 15세기이전의 假想的 現實音을 막연히 指稱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音假名		推	正	金	記	紀	萬	備考
ko乙	己	○	○				○	ko乙, ki乙 通用
	許	○	○		○	○	○	
	巨	○	○			○	○	
	居		○			○	○	ko乙, ke乙 通用
	去		○			○	○	
	虛					○	○	
	忌						○	
	擧					○		ko乙, ke乙 通用
	宮					○		
	據					○		
	渠					○		
	金						○	二音節表記用音假名
	今						○	〃
	近		○					〃
	乞						○	〃
	興		○			○	○	〃
go甲	胡		○	○	○	○	○	
	吳		○			○	○	
	侯		○				○	
	後		○				○	
	虞						○	go甲, gu 通用
	吾					○		
	誤					○		
	悟					○		
	娛					○		
go乙	其		○		○		○	
	期		○				○	
	碁				○		○	
	擬						○	
	語					○		
	御					○		
	馭					○		
so甲	噉	○						
	蘇	○	○		○	○	○	
	宗	○	○	○	○		○	
	祖		○				○	
	素					○	○	so甲, su 通用

音假名		推	正	金	記	紀	萬	備考
	泝					○		
so乙	思	○						so乙, si 通用
	曾		○		○	○	○	
	所		○			○	○	
	僧		○				○	
	增					○	○	
	則					○	○	
	贈					○		
	諸					○		
	層					○		
	賊					○		so乙, zo乙 通用
zo甲	俗					○		
zo乙	叙				○	○	○	
	存				○			
	序					○	○	
	賊						○	so乙, zo乙 通用
	鱒					○		
	茹					○		
	鋤					○		
to甲	刀	○	○	○	○	○	○	
	斗		○		○	○	○	
	都		○			○	○	to甲, tu 通用
	土		○		○	○	○	to甲, do甲 通用
	度					○	○	〃
	覩					○		to甲, tu 通用
	妬					○		
	杜					○		
	圖					○		to甲, tu, du 通用
	屠					○		to甲, tu 通用
	塗					○		
	徒					○		to甲, tu 通用
	渡					○		to甲, do甲 通用
to乙	止	○	○				○	
	等	○	○	○	○	○	○	
	登		○		○	○	○	
	騰					○	○	to乙, do乙 通用
	苔					○		

音假名		推	正	金	記	紀	萬	備 考
	台					○		
	騰					○		to乙, do乙 通用
	藤					○		〃
	鄧					○		
	德		○	○		○	○	二音節表記用音假名
	得		○			○	○	〃
do甲	度		○		○	○	○	to甲, do甲 通用
	渡		○			○	○	〃
	土		○				○	〃
	叙					○		do甲, no甲, nu 通用
	怒					○		〃
do乙	杼		○		○	○	○	
	騰				○	○	○	to乙, do乙 通用
	縢				○			〃
	藤						○	〃
	特						○	
	耐					○		
	迺					○		do乙, no乙 通用
no甲	努		○	○	○	○	○	no甲, nu 通用
	怒		○		○	○	○	do甲, no甲, nu 通用
	叙		○			○		〃
	弩					○	○	no甲, du 通用
no乙	乃	○	○		○		○	
	能		○	○	○	○	○	
	迺					○		no乙, do乙 通用
yo甲	用		○		○	○	○	
	欲						○	
	容						○	
	庸					○		
yo乙	已	○						yo乙, i 通用
	余	○	○		○	○	○	
	與	○	○		○	○	○	
	予		○		○	○	○	
	餘		○			○	○	
	預		○			○		

音假名		推	正	金	記	紀	萬	備 考
	暮					○	○	
ro甲	漏		○		○	○	○	ro甲, ru 通用
	魯		○			○		
	婁		○			○		ro甲, ru 通用
	路				○		○	
	盧				○	○		ro甲, ru 通用
	樓				○	○		〃
	露					○		
ro乙	里	○	○				○	ro乙, ri 通用
	呂		○	○	○	○	○	
	侶		○	○	○	○	○	
	慮					○		
	廬					○		
	閭					○		

萬葉音假名 漢字 하나하나는 原則的으로 日本語의 音節單位表記에 利用되고 있으나, ko乙類의 "金, 今, 近, 乞, 興"이나 to乙類의 "德, 得"처럼 連續되어 있는 두 音節表記에 利用되는 수도 있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상당수의 音假名 漢字가 둘 또는 그 이상의 音節表記에 通用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중에는 물론 通時的 變化에 起因하는 것도 包含되어 있어, 이들을 한꺼번에 共時的 槪念인 通用으로 處理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性格의 通用이건 거기에는 一定한 制約이 內在하고 있어 注目된다.

먼저 o段甲類의 一部 音假名은 같은 o段甲類 혹은 u段音節表記에만 通用된다.

(a) o段甲類끼리 通用되는 音假名

to甲~do甲 土度渡

(b) o段甲類와 u段에 通用되는 音假名[9]

go甲~gu 虞
so甲~su 素
to甲~du 都覩屠徒
no甲~du 弩
no甲~nu 努
ro甲~ru 樓漏盧婁

(c) 세가지 音節에 通用되는 o段甲類의 音假名

9) 甲乙類의 區別을 가지지 않는 o段 音節에도 비슷한 類型의 通用이 나타난다. po~pu(富), mo~mu(茂謀模), wo~u(烏).

to甲~tu~du	圖
do甲~no甲~nu	奴怒

이에 반하여 o段乙類의 一部 音假名은 같은 o段乙類 혹은 i, e段音節表記에만 通用된다.

(d) o段乙類끼리만 通用되는 音假名

so乙~zo乙	賊
to乙~do乙	騰藤
do乙~no乙	酒

(e) o段乙類와 i, e段에 通用되는 音假名[10]

ko乙~ki乙	己
so乙~si	思
yo乙~i	已
ro乙~ri	里
ko乙~ke乙	居擧

이처럼 o段甲乙類의 音假名이 通用될 수 있는 範圍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그것이 母音을 基準으로 할 때 甲類의 경우는 u段이며, 乙類의 경우는 i, e段이다. 一般的으로 同一한 音假名이 甲類와 乙類를 넘나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11], u段에 通用될 수 있는 o段音假名은 甲類에 속하는 音假名의 一部 뿐이다. 이상과 같은 o段音假名의 流動性은 물론 音假名 用法의 時代的 變遷, 文獻別 差異, 記錄者 個個人의 趣向 등을 反映하고 있겠지만, 그속에 內在하고 있는 일종의 制約은 音假名의 通用이 音聲學的으로나 音韻論的으로 檢討해 볼만한 價値가 있는 것임을 暗示한다.

여기서 위에 分類해 놓은 通用類型이 어느 정도의 共時性을 가지는가 하는 點이 問題된다. 우선 同一한 o段間의 通用인 (a)와 (d)는 共時的 通用임이 거의 分明하다. 다음 頁에 보이는 바와 같이 同一한 文獻內에서도 通用이 可能했기 때문이다.

"賊, 騰, 藤"은 같은 文獻內에서 通用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이것은 소위 文獻別 用法의 差異를 反映하는 것일 뿐, 通用의 共時性을 否定하는 것

10) 註 9에 例示한 類型과는 對照的으로 甲乙類의 區別이 없는 o段音假名에도 다음과 같은 通用이 나타난다.
po~pa(方法), po~pe乙~be乙(倍陪), mo~ma(望莽), mo~me乙(梅).
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경우의 通用은 通時的인 變化로 解釋되어 註 9의 類型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다.

11) 따라서 o段이외의 音假名이 通用될 때에도, 甲類는 甲類끼리, 乙類는 乙類끼리 넘나들 뿐이다.
ki甲~gi甲(伎祇), pi甲~bi甲(毗), bi甲~mi甲(彌麻頉)
ki甲~ke甲(祁), bi甲~be甲(婢)
pi乙~bi乙(肥)
「日本書紀」에는 "謎"가 be甲~be乙~me甲, "迷"가 me甲~me乙의 通用을 보이고 있어 위의 原則에 例外가 된다.

은 아니다. 그밖의 音假名들은 모두 同一文獻內에서 通用이 일어난다.

	(a) 土 to甲/do甲	度 to甲/do甲	遂 to甲/do甲	(d) 賊 so乙/zo乙	騰 to乙/do乙	騰 to乙/do乙	藤 to乙/do乙	通 do乙/no乙
推								
正	○ ○	○	○					
金								
記	○	○			○	○		
紀	○	○ ○	○ ○	○	○ ○	○	○	○ ○
萬	○ ○	○ ○	○	○	○ ○		○	

o段과 u段間의 通用인 (b)도 共時的 通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處 go甲/gu	素 so甲/su	都 to甲/du	覩 to甲/du	屠 to甲/du	徒 to甲/du
推			○			
正			○ ○			
金			○			
記			○			
紀	○	○ ○	○ ○	○ ○	○ ○	○ ○
萬	○	○	○ ○			

	弩 no甲/du	努 no甲/nu	樓 ro甲/ru	漏 ro甲/ru	盧 ro甲/ru	裏 ro甲/ru
推						
正		○ ○		○		○
金		○ ○				
記		○	○	○	○ ○	○ ○
紀	○ ○	○ ○	○ ○	○ ○	○	
萬	○	○ ○		○		

같은 文獻內에서 通用을 보이지 않는 例는 "農"뿐이다. 그밖의 音假名들은 모두 同一文獻內에서 通用을 보여준다.[12] 따라서 o段甲類~u段의 通用도

12) 甲乙의 區別이 없는 o段音假名도 같은 性格을 보여준다.

	富 po/pu	茂 mo/mu	謀 mo/mu	模 mo/mu	烏 wo/u
推	○				
正	○ ○	○		○	○
金					
記	○				
紀	○ ○	○ ○	○	○ ○	○
萬	○	○	○	○	○ ○

"謀" 만은 同一한 文獻에 通用이 나타나지 않으나 그밖의 것들은 모두 同一한 文獻內에서 通用된다.

共時的 性格을 보이는 것이다.

세가지 音節에 通用되는 (c)는 共時的인 것이라고 간단히 處理하기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는 역시 共時的 通用으로 볼 수 있다.

	圖 to甲/tu/du	奴 do甲/no甲/nu	怒 do甲/no甲/nu
推		○	○
正		○ ○	○ ○
金			
記		○	○
紀	○ ○ ○	○ ○ ○	○ ○ ○
萬		○	○ ○

결국 (a)(b)(c)(d)에 들어 있는 音假名의 通用은 대체로 共時性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段乙類와 i, e段에 함께 쓰인 (e)는 그 性格이 상당히 다르다.

	己 ko乙/ki乙	思 so乙/si	巳 yo乙/i	里 ro乙/ri	居 ko乙/ke乙	擧 ko乙/ke乙
推	○	○	○	○	○	○
正	○	○		○ ○	○ ○	
金						
記						
紀	○	○		○	○ ○	○
萬	○	○	○	○ ○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o段乙類의 音假名은 u段에 通用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오직 몇몇 音假名만이 表面上 i, e段에 通用된다. 이때에도 甲乙類의 區別을 가진 i, e段音節은 乙類로만 나타난다. 이러한 通用內容을 文獻上으로 整理해 보면 바로 위와 같은 結果가 된다. 적어도 여기에 包容되는 通用이 共時的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文獻에 나타나는 相對的 時期로 보아 이들은 分明히 通時的 關係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 e段에 通用되는 o段乙類의 音假名은 推古期遺文에 빠짐없이 쓰인 것들이지만, 이때에는 "己, 思, 巳, 里"가 o段乙類, "居, 擧"가 e段乙類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이른바 推古期의 特殊用法을 보이는 것으로서, 萬葉音假名의 初期的 段階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더구나 "己, 思, 巳, 擧"는 同一한 文獻內에서 通用되는 일이 없었으며, "思, 巳"가 각기 so乙類, yo乙類에 쓰이거나, "擧"가 ke乙類에 쓰인 것은 推古期遺文 뿐이다. 이렇게 볼 때 "己, 思, 巳, 里"는 처음에 o段乙類에만 쓰이다가 차츰 i段(甲乙類의 區別이 있는 音節일 경우에는 i段乙類)에 쓰이게 되었으며, "居, 擧"는 처음에 e段乙類에만 쓰이다가 나중에 o段乙類에 쓰이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己, 思, 巳,

里"가 보여주는 ko乙類~i段(혹은 i段乙類), "居, 擧"가 보여주는 ko乙類~ke乙類와 같은 流動性은 실상 ko乙類→i段, ke乙類→ko乙類와 같은 通時的 變化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表面上 共通的 通用처럼 보인 것이다.[13]

결과적으로 o段音假名에 나타나는 流動性中 (a)(b)(c)(d)는 共時的인 것이므로 通用이라고 할 수 있으나, (e)는 通時的인 것이므로 通用이라는 槪念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o段音假名의 一部가 보여주는 通用은 첫째 甲類와 甲類 및 乙類와 乙類의 通用, 둘째 甲類와 u段의 通用이 그 全部라고 할 수 있으며, 乙類와 i, e段의 通用은 共時的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o段音假名의 甲類와 甲類 및 乙類와 乙類의 通用은 子音에 關係되는 것이다. 따라서 o段音假名이 보여주는 通用으로서 母音과 關係되는 것은 甲類와 u段의 通用뿐이며, 乙類는 아무런 母音과도 通用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o段甲類의 母音이 音聲實質上 u와는 混同을 일으킬 수도 있는 聽覺的 特質을 가지고 있었지만, o段乙類의 母音은 그렇지 않았음을 暗示한다. 이렇게 볼 때 o段甲類에 나타나는 母音의 音聲實質로 가장 有力한 것은 理論上 圓脣性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o段乙類에 나타나는 母音은 甲類에 나타나는 母音과의 關係로 볼 때 圓脣性을 缺如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이므로, o段音節의 甲乙類 區別은 결국 母音의 圓脣性 有無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

13) 註 10에 例示한 바와 같이 甲乙類의 區別이 없는 o段音假名이 i, e, a段을 넘나드는 現象도 사실은 通時的 性格을 다분히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方	法	倍	陪	望	莽	梅
	po/pa	popu/papu	po/pe乙/be乙	po/pe乙/be乙	mo/$^{maga}_{magu}$	mo/ma	mo/me乙
推古金石記							
正	○	○	○	○	○		
金							
記		○		○			
紀		○	○	○	○	○	○
萬	○	○	○	○	○		○

表面上으로는 이들이 共時的 通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o段音節 po, mo의 音節主音은 본래 pa/pe乙~be乙, ma/me乙에 包含되어 있는 非圓脣母音이 先行하는 脣音때문에 圓脣母音化한 것임을 쉽게 推測할 수 있다. "方, 法, 倍, 陪, 望, 莽, 梅"의 韓國漢字音이 모두 非圓脣母音을 音節主音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도 po, mo의 音節主音 o가 非圓脣母音에서 二次的으로 發達한 것임을 뒷받침 해 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甲乙類의 區別이 없는 o段音假名의 一部가 i, e, a段에 넘나드는 現象도 根本的으로는 通時的 節次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o段乙類의 母音이 脣音이나 脣音性轉移音 뒤에 配分되지 않는다는 事實로도 o段甲乙類의 區別이 圓脣性과 關係된다는 것을 理論的으로 推理할 수 있다 (松本克己 1975:145). 乙類의 母音은 圓脣性을 가지지 않지만 先行子音이 脣音일 경우, 거기에 同化되면 圓脣性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古事

다만, o段甲類와 u段에 通用되는 音假名은 흔히 일컬어지는 것보다 그 數가 적다. 그것도 대개는 齒莖音(t, d, n)이나 流音(r)을 頭子音으로 하는 音假名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no甲類에 속하는 音假名처럼 모두가 다른 音節表記에 通用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範圍에 나타나는 通用을 除外한다면, o段甲類와 u段音節表記에 利用된 音假名의 대부분은 그 本來의 領域을 잘 지켜, 어느 한쪽에만 使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事實을 重視한 일이 별로 없는 듯하나, 여기에는 音聲學的으로나 音韻論的으로 버릴 수 없는 意味가 內包되어 있으므로 아래에 그 內容을 整理해 본다.

o 段 專 用	o~u 段 通 用	u 段 專 用
('-)意於隱飫淤憶應(邑磯乙)		('-)汙有宇于羽紆禹(雲鬱)
(ko甲)古故高庫祜姑孤枯固顧		(ku)久玖口句群苦丘九鳩俱區句矩絢衢寠履(君訓菊)
(ko乙) 許巨去虛忌莒據渠(金今近乞興)		
(go甲)胡吳侯後吾誤悟娛	(go甲~gu)虞	(gu)具遇求隅愚(群)
(go乙)其期碁擬語御馭		
(so甲)嗽蘇宗祖泝	(so甲~su)素	(su)須周洲洲州珠主數秀輸殊藪(駿足宿)
(so乙)曾所增則贈諸層賊		
(zo甲)俗		(zu)受授聚殊孺儒
(zo乙)叙存序賊鋤茹鋤		
(to甲)刀斗土度妬杜塗渡	(to甲~tu)都覩屠徒 (to甲~tu~du)圖	(tu)豆通追頭菟途突川(筑竹竺)
(to乙)止等登騰苔台藤謄鄧(德得)		
(do甲)度渡土	(do甲~no甲~nu)奴怒	(du)豆頭逗誓
(do乙)抒騰謄藤特耐廼		
(no甲)———	(no甲~du)弩	(nu)蒭漫農
(no乙)乃能廼	(no甲~nu)努	
(po)菩保寶本番蕃朋抱褒袍報袍譜(凡品)	(po~pu)富	(pu)布不敷甫賦府否負符輔赴浮(紛靡)
(bo)煩		(bu)夫父部扶步矛簿(服)
(mo)毛母文聞忘蒙畝問門勿木暮慕謨悶墓(物)	(mo~mu)茂謀模	(mu)牟武无務無儛鵡霧夢(目)
(yo甲)用欲容庸		(yu)由喩遊油庾踰愈瑜臾
(yo乙)余與予餘預譽		
(ro甲)魯路露	(ro甲~ru)樓漏盧裏	(ru)留流琉類瘤屢蘆
(ro乙)呂侶慮廬稜		
(wo)乎衰曰遠怨呼嗚搗弘惋(越)	(wo~u)烏	

※ 괄호안은 連續되어 있는 두 音節表記用 音假名

記」에는 mo에 甲乙類의 區別이 殘存하고 있으나, 이것은 mo乙類의 非圓唇母音이 先行하는 唇音 m에 同化되어 mo甲類의 圓唇母音에 合流되기 이전 狀態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o, u段音節表記에 通用되는 音假名은 o段 혹은 u段 어느 한쪽에만 固定되어 있는 音假名에 비하여 그 數가 絶對的으로 적다. 이 事實은 o段甲類의 母音이 音聲資質上 u段의 母音에 가까왔다고 하더라도, 聽覺的으로 전적인 混同을 일으킬만큼 가깝지는 않았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o段甲類의 母音과 u段의 母音이 圓脣性을 共有하고는 있었겠지만 또다른 資質에 의하여 두 母音은 어렵지 않게 區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혀의 높이와 關係되는 資質이었으리라는 事實을 理論的으로 推測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결국 o段音假名 자체의 流動性 속에 막연하나마 甲乙類의 音聲的 特質이 이미 內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o段甲類와 乙類의 母音이 圓脣性에 의하여 區別될 수 있다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또한 中古漢語의 再構音을 통하여 精密하게 檢討되어 왔으나, 韓國漢字音은 이를 더욱 손쉽게 뒷받침해 줄 것이다.

3. 韓國漢字音과 o段母音 甲乙類

嚴密한 意味로 볼 때, 萬葉音假名의 音聲資質을 中古漢語音만으로 解決하려는 態度는 어느 程度 危險負擔을 안고 있다. 萬葉假名은 첫째, 日本語에 이미 同化된 獨自的 書寫體系여서 中古漢語音 그대로의 直接的인 轉寫體系가 아니다. 둘째, 中古漢語音이란 存在는 어디까지나 再構音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誤謬가 介入되지 않는다는 絶對的 保障이 없다. 셋째, 萬葉假名이 漢語音만을 基盤으로 하여 形成되었다는 確證이 없다. 이러한 몇가지 理由는 中古漢語音만으로 萬葉假名의 音聲資質을 云謂하는 것이 論理的으로 無理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事情속에서 萬葉音假名과 中古漢語音 사이의 距離를 어느 程度 調整해 줄 수 있는 存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韓國漢字音이 아닐 수 없다.

韓國漢字音은 史的으로 보더라도 萬葉假名과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그와 같은 史的關係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分明하게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確實한 것은 韓國漢字音이 萬葉音假名의 경우, o段甲乙類의 性格을 中古漢語音 못지 않게 잘 들어내 주고 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 中古漢語의 再構音을 基準으로 하여 o段甲乙類의 音假名과 韓國漢字音의 反射形을 比較해 보려는 것이다.[15]

---

15) 中古漢語의 再構音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한 基準을 위한 것이므로 牛島德次(1967:145-149)에 提示되어 있는 平山久雄교수의 聲母 및 韻母 音價表를 그대로 따를 것이며, 韻母는 平聲字를 代表로 삼는다. 萬葉音假名의 範圍는 이미 앞에서 檢討한 바 있는 內容 그대로인데, 두 가지 音節에 通用되는 音假名은 양쪽에 모두 넣어둔다.

韓國漢字音은 文獻에 따라 다른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중 代表的인 發音

(1) ko 甲類

聲 \ 韻	遇攝1等開口 模 (-o)	効攝1等開口 豪 (-au)
見(k-)	孤고(訓蒙下 14)	高고(六祖中 33)
	姑고(訓蒙上 16)	
	古고(訓蒙下 1)	
	顧고(新類上 25)	
	故고(新類下 17)	
	固고(新類下 59)	
溪(k'-)	枯고(新類下 50)	
	庫고(訓蒙中 5)	
匣(ɦ-)	祜후(華東上 20)	

(2) ko 乙類

聲 \ 韻	遇攝3等開口 魚 (-iə)	止攝3等開口 之 (-iəi)	深攝3等開口 侵 (-iĕm)	臻攝3等開口 欣 (-iən)	曾攝3等開口 蒸 (-iəŋ)
見(k-)	居거(六祖序 4)	己긔(新類下 4)	金금(訓蒙中15)		
	擧거(新類下20)		今금(訓蒙下 1)		
	莒거(華東上15)				
	據거(新類下18)				
溪(k'-)	去거(新類下19)			乞걸(訓蒙下10)	
群(g-)	渠거(訓蒙中 3)	忌긔(新類下15)		近근(訓蒙下15)	
	巨거(新類下48)				
曉(h-)	虛허(六祖中30)				
	許허(新類下36)				
匣(ɦ-)					興흥(新類下45)

甲類音假名 "祜"의 實際的인 韓國漢字音은 "호"였음이 分明하다(河野六郎 1968: 資料音韻表 p. 227).[16] 乙類의 "己"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推古期의 特殊用法을 보이는 音假名으로서 「日本書紀」에서만은 ki乙類로 쓰인 바 있다. 志韻(之韻의 去聲)에 속하는 "忌"는 止韻(之韻의 上聲)에 속하는 "己"와 함께 止攝3等開口에 包括되는 漢字로서 「萬葉集」에만 쓰였으나 "己"와 "忌"가 諧聲系列이란 점을 勘案할 때, "忌" 역시 特殊한 音假名의 하나

하나만을 表示하기로 한다. 利用된 文獻은 다음과 같다.「救急簡易方」(1489),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1496), 「訓蒙字會」(叡山本 1527), 「千字文」(光州版 1575), 「新增類合」(鷹孫本 1576), 「小學諺解」(宣祖版 158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16) 「華東正音通釋韻考」에는 模, 姥, 暮韻이 中世漢語의 特徵에 따라 각기 虞, 麌, 遇韻에 統合되어 있기 때문에 姥韻(模韻의 上聲)에 속하는 "祜"가 "후"로 나타나지만, 그 韻目의 頭註에 "此韻中聲皆从ㅜㅠ 俗多从ㅗ非註煩不著俗音 觀者辨之"라는 但書가 보이므로 "祜"의 實際發音은 "호"였음이 거의 分明하다.

라고 생각된다(有坂秀世 1955: 330). "金, 今, 近, 乞, 興"은 連續되어 있는 두 音節을 한꺼번에 表記하기 위한 音假名이므로 보통 한 音節을 表記하기 위한 音假名과는 그 性格이 크게 다르다.

이상과 같은 檢討를 통할 때, 乙類의 "己, 忌, 金, 今, 近, 乞, 興"은 다 같이 特殊한 性格을 지닌 音假名들이므로, 韓國漢字音과의 比較에서 除外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17] 그렇게 되면 k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빠짐없이 韓國漢字音의 "ㅗ"에 對應되는 반면, k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모두가 韓國漢字音의 "ㅜ"에 잘 對應된다.

(3) go 甲類

聲 \ 韻	遇攝 1 等開口 模 (-o)	遇攝 3 等開口 虞 (-ɣu)	流攝 1 等開口 侯(-əu)
疑(ŋ-)	吾오(訓蒙下10)	虞우(千字文 5)	
	吳오(救急一15)	娛오(新類下13)	
	娛오(新類下27)		
	悟오(六祖中 7)		
匣(ɦ-)	胡호(救急一100)		侯후(訓蒙中 1)
			後후(救急三12)

(4) go 乙類

聲 \ 韻	遇攝 3 等開口 魚 (-ɪə)	止攝 3 等開口 之 (-ɪəɪ)	曾攝 3 等開口 蒸 (-ɪəŋ)
見(k-)		其기(新類上19)	
群(g-)		期긔(新類下13)	
		碁긔(新類上24)	
疑(ŋ-)	語어(救急一 1)		凝응(新類下60)
	御어(訓蒙下13)		
	馭어(訓蒙下 4)		

甲類의 "虞"는 「萬葉集」에 go甲類, 「日本書紀」에 gu로 쓰인 音假名이다. 韓國漢字音으로 보아 乙類의 "其, 期, 碁"는 약간 特異한 音假名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推古期遺文에 쓰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音節表記에 通用된 일도 없으나, 이들과 함께 止攝3等開口의 之韻에 속하는 "思, 止"가 推古期에는 각기 so乙類, to乙類에 쓰인 바 있고, 止韻(之韻의 上聲)에 속하는 "已, 里"가 각기 yo乙類, ro乙類에 쓰인 바 있으므로, "其, 期, 碁"는 본래 推古期의 特殊假名인 o段乙類의 "思, 止, 已, 里"와 같은 性格을 가진

17) 乙類의 "居, 擧" 역시 推古期의 特殊用法을 지닌 音假名이지만, 이들은 처음에 ke乙類로 쓰이다가 나중에 ko乙類로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推古期에 ko乙類로 먼저 쓰이다가 나중에 ki乙類로 쓰이게 된 "己"와는 그 通時的 過程이 完全히 다르므로 "己"가 ko乙類에서 除外되어야 할 理由는 있지만, "居擧"가 ko乙類에서 除外되어야 할 理由는 없을 것이다.

音假名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有坂秀世 1955: 330). 이들을 對象에서 除外한다면 g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ㅗ"에 대체로 對應되며, 그 一部가 "ㅜ"에 對應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go乙類音假名은 燕韻에 속하는 "擬"을 내놓고는 모두가 韓國漢字音의 "ㅓ"에 잘 對應된다.

(5) so 甲類

聲＼韻	遇攝 1 等開口 模 (-o)	流攝 1 等開口 侯 (-əu)	通攝 1 等開口 冬 (-oŋ)
精(ts-)	祖조(六祖中47)		宗종(訓蒙上17)
心(s-)	蘇소(救急一 2)	嗽수(訓蒙中16)	
	素소(訓蒙中14)		
	泝소(新類下34)		

(6) so 乙類

聲＼韻	遇攝 3 等開口 魚 (-ɪə)	止攝 3 等開口 之 (-ɪə̆ɪ)	曾攝 1 等開口 登 (-əŋ)
精(ts-)			曾증(新類下52)
			增증(新類下45)
			則즉/측(新類下23)
從(dz-)			層층(新類下52)
			贈증(訓蒙下 9)
			賊적(訓蒙中 2)
心(s-)		思ᄉ(新類下11)	僧승(訓蒙中 2)
章(ʧ-)	諸져(新類上16)		
書(ʃ-)	所소(訓蒙中 4)		

甲類의 "嗽"와 乙類의 "思"는 推古期遺文에만 나타나므로 對象에서 당연히 除外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s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ㅗ"에 잘 對應되는 반면, s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ㅡ"에 대체로 對應된다. 다만 乙類에 속하는 音假名은 대부분 曾攝1等開口의 登韻이나 嶝韻(登韻의 去聲), 심지어 "賊"의 경우처럼 德韻(登韻의 入聲)에서 由來하고 있어, 韓國漢字音은 모두가 韻尾를 保存하고 있으나, 萬葉音假名에는 이러한 要素가 反映되어 있지 않아 特徵的이다. 비슷한 傾向은 to乙類, do乙, no乙類 그리고 yo甲類에서도 發見된다. o段乙類에 가장 일반적인 遇攝3等開口의 魚韻이 이들 音節에 거의 쓰이지 않은 것은 여기에 適合한 漢字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so乙類, to乙類, do乙類, no乙類 등에 登韻(드물게는 登韻의 入聲인 德韻)이 魚韻보다 많이 쓰였다고 해서 이들 音節의 母音이 魚韻보다 登韻에 더 가까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o段乙類의 母音은 역시 魚韻에 가장 가까왔겠지만, 몇몇 音節에는 거기에 꼭맞는 漢字가 魚韻에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魚韻에 가까운 登韻이 할 수 없이 選擇되었다고 理解되는 것이다. 이렇게 解釋할 때에만 o段乙類의 몇몇 音節에

魚韻보다 登韻이 많이 쓰인 理由가 鮮明해질 것이다. 한편 so乙類의 "所"는 韓國漢字音에 "ㅗ"로 나타나고 있어, zo乙類의 "存, 鐏"과 함께 說明하기 어려운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7) zo 甲類

聲＼韻	通攝 3 等開口 鍾 (-ioŋ)
邪(z-)	俗속(六祖上 5)

(8) zo 乙類

聲＼韻	遇攝 3 等開口 魚 (-iə)	臻攝 1 等合口 魂 (-uən)	曾攝 1 等開口 登 (-əŋ)
從(dz-)		存존(新類下57) 鐏존(訓蒙下 7)	賊적(訓蒙中 2)
邪(z-)	序셔(新類上18) 叙셔(新類下27)		
船(dʑ-)	鋤서(訓蒙中 8)		
日(ɲ-)	茹여(新類下40)		

甲類의 "俗"은 「萬葉集」에서만 確認되는 音假名인데 燭韻(鍾韻의 入聲)에 속하는 漢字여서 特徵的이다. 乙類의 "存, 鐏"은 so乙類의 "所"처럼 韓國漢字音의 圓唇母音 "ㅗ"에 對應하고 있어, o段甲乙類 音假名 全體를 통하여 乙類의 母音이 韓國漢字音의 "ㅗ"에 對應되는 例外的 存在가 된다. 그러나 zo 乙類音假名의 母音은 대체로 韓國漢字音에 "ㅕ" 또는 "ㅜ"로 나타나, 다른 音節과 비슷한 性格을 보여준다.

(9) to 甲類

聲＼韻	遇攝 1 等開口 模 (-o)	流攝 1 等開口 侯 (-əu)	効攝 1 等開口 豪 (-au)
端(t-)	都도(訓蒙中 4) 覩도(訓蒙下12) 妬투(六祖中25)	斗두(訓蒙中 6)	刀도(六祖上11)
透(t'-)	土토(新類上 6)		
定(d-)	徒도(訓蒙上17) 屠도(訓蒙下 5) 塗도(訓蒙下58) 圖도(新類下41) 杜두(新類下15) 度도(六祖中19) 渡도(新類下26)		

(10) to 乙類

聲 \ 韻	止攝 3 等開口 之 (-ɨɦi)	曾攝 1 等開口 登 (-əŋ)	蟹攝 1 等開口 咍 (-Ai)
端(t-)		登등(新類下 5) 等등(新類下17) 得득(六祖序 3) 德덕(六祖中50)	
定(d-)		騰등(訓蒙下 5) 藤등(訓蒙下 2) 謄등(華東下28) 鄧등(小學六65)	台듸(訓蒙中 3) 苔듸(訓蒙上 4)
章(tɕ-)	止지(新類下47)		

乙類의 "止"는 正倉院文書나 「萬葉集」에도 쓰이고 있지만 그 由來는 推古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止攝3等開口의 "之, 止, 志韻"에 속하는 다른 音假名과 함께 對象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또한 乙類의 "德, 得" 역시 連續되어 있는 두 音節을 表記하기 위한 것이므로 除外된다. 그렇게 되면 絶對多數의 to甲類音假名의 母音이 韓國漢字音의 "ㅗ", 극히 一部가 "ㅜ"에 對應되고 있으며, t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so乙類나 do乙類의 경우처럼 韓國漢字音의 "ㅡ"에 크게 對應되고 있지만, 그 理由에 대해서는 so乙類의 檢討時에 言及해 둔바 있다. 乙類의 "台, 苔"는 咍韻이어서 韓國漢字音으로 볼 때 약간 특이하나, do乙類와 no乙類에도 咍韻에 속하는 漢字가 쓰이고 있어 그 軌를 같이하고 있다.

(11) do 甲類

聲 \ 韻	遇攝 1 等開口 模 (-o)
透(t'-)	土토(新類上 6)
定(d-)	度도(六祖中19) 渡도(新類下26)
泥(n-)	奴노(訓蒙上17) 怒로(新類下 3)

(12) do 乙類

聲 \ 韻	遇攝 3 等開口 魚 (-ɪə)	曾攝 1 等開口 登 (-əŋ)	蟹攝 1 等開口 咍 (-Ai)
定(d-)		騰등(訓蒙下 5) 藤등(訓蒙下 2) 謄등(華東下28) 特특(六祖序19)	
泥(n-)			遲내(華東上27) 耐내(新類下11)
澄(ɖ-)	杼뎌(訓蒙中 9)		

乙類의 "特"은 喉內入聲에서 由來한 音假名으로 so乙類의 "則", so乙類 및 zo乙에 通用되는 "賊"과 더불어 드물게 밖에 쓰이지 않은 것이다. 乙類의 "酒, 耐"도 어느 정도 特異한 것이다. 그러나 d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에 모두 "ㅗ"로 나타나며 d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대체로 韓國漢字音의 "ㅡ"에 對應된다. 乙類에 登韻이 많이 쓰인 經緯에 대해서는 앞서 言及한 바 있다.

(13) no 甲類

聲 \ 韻	遇攝1等開口 模 (-o)
泥(n-)	奴ㅗ(訓蒙上17) 怒로(新類下 3) 弩ㅗ(訓蒙中14) 努누(華東上19)

(14) no 乙類

聲 \ 韻	曾攝1等開口 登 (-əŋ)	蟹攝1等開口 哈 (-Ai)
泥(n-)	能능(六祖上 6)	乃내(新類上16) 酒내(華東上27)

甲類音假名 "努"의 實際的인 韓國漢字音은 ko甲類音假名 "祜"가 "호"로 認定되는 것처럼 "노"였음이 分明하다(河野六郎 1968: 資料音韻表 p. 228)[18] 그러고 보면 n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ㅗ"에 다같이 對應된다. n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so乙類, to乙類 그리고 do乙類와 完全히 같은 性格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原則的으로는 韓國漢字音의 "ㅡ"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no乙類에 魚韻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들어맞는 漢字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5) yo 甲類

聲 \ 韻	通攝3等開口 鍾 (-ɪoŋ)
羊(j-)	容용(訓蒙上13) 庸용(新類下 2) 用용(新類上 9) 欲욕(新類下 4)

乙類의 "已"는 推古期에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미 앞에서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對象에서 除外된다. 그렇게 되면 y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

18) 그 理由에 대해서는 註 16 參照.

(16) yo 乙類

聲 \ 韻	遇攝3等開口 魚 (-ɪə)	止攝3等開口 之 (-ɪəɪ)
羊(j-)	與여(新類下63) 予여(訓蒙下10) 余여(新類下 6) 餘여(新類下58) 譽예(新類下45) 預여(新類下38)	已이(小學二 4)

字音의 "ㅛ"에 잘 對應되며, y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ㅕ"에 크게 對應된다. yo甲類音節表記에 鍾韻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理由 역시 거기에 合當한 漢字가 模韻에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yo甲類는 so 乙類, to乙類, do乙類, no乙類와 비슷한 性格을 보이고 있다.

(17) ro 甲類

聲 \ 韻	遇攝1等開口 模 (-o)	流攝1等開口 侯 (-əu)
來(l-)	盧로(六祖序 9) 魯로(小學四23) 路로(新類上18) 露로(新類上 4)	婁루(小學六27) 樓루(新類上22) 漏루(救急三11)

(18) ro 乙類

聲 \ 韻	遇攝3等開口 魚 (-ɪə)	止攝3等開口 之 (-ɪəɪ)	曾攝1等開口 登 (-əŋ)
來(l-)	廬려(訓蒙中3r) 呂려(千字文 2) 侶려(訓蒙中 2) 慮려(新類下26)	里리(訓蒙中 5)	稜릉(新類下51)

乙類의 "里" 또한 推古期에 由來를 둔 音假名이므로 對象에서 除外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고 나면 ro甲類音假名의 母音은 韓國漢字音의 "ㅗ" 또는 "ㅜ"에 對應을 보이며, ro乙類音假名의 母音은 대체로 韓國漢字音의 "ㅕ"에 對應을 보인다.

이상으로 各音節에 利用된 音假名의 性格과 그들이 韓國漢字音에 어떻게 反射되어 있는지를 대충 檢討해 보았다. 그 結果 全體 音假名中에는 약간 異質的인 存在가 包含되어 있어, 이들을 檢討對象에서 除外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音假名으로는 먼저 推古期의 特殊用法이라고 생각되는 ko乙類의 "己忌", go乙類의 "其, 期, 碁", so甲類의 "嗽", so乙類의 "思", to乙類의 "止", yo乙類의 "已", ro乙類의 "里"가 있으며, 連續되는 두 音節表記에 利用된 ko

乙類의 "金, 今, 乞, 近, 興"과 to乙類의 "德, 得"이 있다. 이들을 除外하고 나면 韓國漢字音의 反射形과 比較될 수 있는 o段甲乙類의 音假名은 결국 다음과 같아진다.

ko甲 : 古故高庫祜姑孤枯固顧	10字
ko乙 : 許巨居去虛擧宮據渠	9字
go甲 : 胡吳侯後虞吾誤悟娛	9字
go乙 : 擬語御馭	4字
so甲 : 蘇宗祖素泝	5字
so乙 : 曾所僧增則贈諮層賊	9字
zo甲 : 俗	1字
zo乙 : 叙存序賊鄒茹鋤	7字
to甲 : 刀斗都土度覩妬杜圖屠途徒渡	13字
to乙 : 等登騰苔台藤謄鄧	8字
do甲 : 度渡土奴怒	5字
do乙 : 杼騰謄藤特耐酒	7字
no甲 : 努怒奴弩	4字
no乙 : 乃能迺	3字
yo甲 : 用欲容庸	4字
yo乙 : 余與予餘預譽	6字
ro甲 : 漏露盧路盧樓露	7字
ro乙 : 呂侶慮廬稜	5字

실상 "賊"은 so乙類와 zo乙類, "度, 渡, 土"는 to甲類와 do甲類, "騰, 藤, 謄"은 to乙類와 do乙類, "奴, 怒"는 do甲類와 no甲類, "通"는 do乙類와 no乙類에 각기 通用되는 音假名이므로 위의 總括表에 二重으로 들어 있다. 이들의 累計는 甲類가 58字, 乙類가 58字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韓國漢字音을 다시 한번 整理함으로써 o段甲乙類母音의 音聲資質에 대한 暗示를 좀더 찾아 보기로 한다.

4. o段母音 甲乙類의 音聲資質

앞에서 간략하게 檢討한 바 있는 o段音假名의 性格을 좀더 明確히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中古漢語의 어떠한 韻目에 속하는 漢字가 어느 音節에 어느 程度로 使用되었는지를 壓縮해서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甲類에는 模韻에 속하는 漢字가 絶對的인 比重으로 利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yo甲類에는 鍾韻에 속하는 "用, 容, 庸"과 더불어 燭韻(鍾韻의 入聲)에 속하는 "欲"까지 利用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鼻音韻尾나 入聲韻尾가 없는 漢字中에서 yo乙類에 合當한 文字를 찾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zo甲類에 燭韻소속인 "俗"이 唯一하게

o段甲類音假名의 韻目別 頻度

攝等開合	韻	推定音	ko	go	so	zo	to	do	no	yo	ro	계
遇1開口	模	-o	9	5	4		11	5	4		4	42
効1開口	豪	-ɑu	1				1					2
遇3開口	虞	-ʏu		2								2
流1開口	侯	-əu		2			1				3	6
通1開口	冬	-oŋ			1							1
通3開口	鍾	-ɪoŋ				1				4		5
계			10	9	5	1	13	5	4	4	7	58

o段乙類音假名의 韻目別 頻度

攝等開合	韻	推定音	ko	go	so	zo	to	do	no	yo	ro	계
遇3開口	魚	-ɪə	9	3	2	4		1		6	4	29
曾1開口	登	-əŋ			7	1	6	4	1		1	20
曾3開口	蒸	-ɪə̆ŋ		1								1
臻1合口	魂	-uən				2						2
蟹1開口	咍	-ʌi					2	2	2			6
계			9	4	9	7	8	7	3	6	5	58

利用된 것도 같은 理由로 說明될 수 있다. 한편 乙類에는 魚韻에 속하는 漢字가 주로 利用되었으나, so乙類, to乙類, do乙類, no乙類에만은 登韻에 속하는 漢字가 크게 利用되었다. 鼻音韻尾를 가진 登韻이나 入聲韻尾를 가진 德韻(登韻의 入聲)소속의 漢字가 이처럼 特定音節表記에 利用될 수 밖에 없었던 理由는 yo甲類의 경우와 같다. 결국 o段音節의 母音만을 基準으로 할 때, 甲類와 乙類는 각기 模韻과 魚韻으로 代辯된다고 볼 수 있다. 中古漢語의 再構音에 의하면 模韻은 -uo 또는 -o, 魚韻은 -jiᵂo 또는 -jo 또는 -ɪə 등 여러가지로 推定되고 있다. 이를 土臺로 할 때, o段母音甲類는 圓脣性과 後舌性을 지닌 母音임에 반하여, 乙類는 非圓脣性과 中舌性을 지닌 母音으로 理解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中古漢語音이란 어디까지나 推定音이다. 이것만으로 安心할 수 없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에 비하면 韓國漢字音은 表音文字에 의한 現實音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信憑性이 있다. 時代的으로는 훨씬 後代의 것이어서 그대로 信用하기는 어려우나, o段母音에 대해서는 많은 暗示를 던져 준다. 이에 o段甲乙類音假名의 母音이 韓國漢字音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韻目別로 다시 한번 壓縮해 보면 다음 頁과 같은 結果가 된다.

韓國漢字音 反射形은 表面上 複雜하지만 그 內容은 中古漢語 再構音에 대체로 一致한다. 甲類의 音假名中 模韻에 속하는 漢字는 "妬, 杜"를 除外하고는 모두 韓國 漢字音에 "ㅗ"로 나타난다. 豪韻, 冬韻, 鍾韻에 속하는 漢字도

o段母音甲類의 韻目別 韓國漢字音

音節	攝等開合	韻	推定音	萬葉音假名	韓國漢字音	頻度	계
ko	遇1開口	模	-o	古故庫祜姑孤枯固顧	-o	9	
	効1開口	豪	-ɑu	高	-o	1	10
go	遇1開口	模	-o	胡吳吾誤悟	-o	5	
	〃	虞	-ʏu	娛	-o	1	
	〃	〃	〃	虞	-u	1	
	〃	侯	-əu	侯後	-u	2	9
so	遇1開口	模	-o	蘇祖素泝	-o	4	
	通1開口	冬	-oŋ	宗	-oŋ	1	5
zo	通3開口	鍾	-ɪoŋ	俗	-yok	1	1
to	遇1開口	模	-o	都土度覩圖屠塗徒渡	-o	9	
	〃	〃	〃	妬杜	-u	2	
	効1開口	豪	-ɑu	刀	-o	1	
	流1開口	侯	-əu	斗	-u	1	13
do	遇1開口	模	-o	度渡土奴怒	-o	5	5
no	遇1開口	〃	〃	努怒奴弩	-o	4	4
yo	通3開口	鍾	-ɪoŋ	用容庸	yoŋ	3	
	〃	〃	〃	欲	yok	1	4
ro	遇1開口	模	-o	魯路盧露	-o	4	
	流1開口	侯	-əu	漏婁樓	-u	3	7

o段母音乙類의 韻目別 韓國漢字音

音節	攝等開合	韻	推定音	萬葉音假名	韓國漢字音	頻度	계
ko	遇3開口	魚	-ɪə	許巨居去虛擧莒據渠	-ə	9	9
go	遇3開口	〃	〃	語御馭	-ə	3	
	曾3開口	蒸	-ɪɜŋ	凝	-iŋ	1	4
so	遇3開口	魚	-ɪə	諸	-yə	1	
	〃	〃	〃	所	-o	1	
	曾1開口	登	-əŋ	曾僧增贈層	-iŋ	5	
	〃	〃	〃	則	-ik	1	
	〃	〃	〃	賊	-ək	1	9
zo	遇3開口	魚	-ɪə	叙序茹	-yə	3	
	〃	〃	〃	鋤	-ə	1	
	臻1合口	魂	-uən	存鐏	-on	2	
	曾1開口	登	-əŋ	賊	-ək	1	7
to	曾1開口	〃	〃	等登騰藤滕鄧	-iŋ	6	
	蟹1開口	咍	-ʌi	苔台	-ʌy	2	8
do	遇3開口	魚	-ɪə	杼	-yə	1	
	曾1開口	登	-əŋ	騰滕藤	-iŋ	3	
	〃	〃	〃	特	-ik	1	
	蟹1開口	咍	-ʌi	耐奈	-ay	2	7

no	曾1開口	登	-əŋ	能	-iŋ	1	
	蟹1開口	哈	-ʌi	乃廼	-ay	2	3
yo	遇3開口	魚	-ɪə	余與予餘預	yə	5	
	〃	〃	〃	譽	yəy	1	6
ro	遇3開口	〃	〃	呂侶慮廬	-yə	4	
	曾1開口	登	-əŋ	稜	-iŋ	1	5

韓國漢字音에는 "ㅗ"로 反射되었다. 虞韻에 속하는 두개의 音假名漢字中 "娛"는 韓國漢字音에 "ㅗ"로 나타난다. 따라서 韓國漢字音에 "ㅜ"를 보이는 것은 虞韻의 "虞"와 侯韻에 속하는 漢字뿐이다. 乙類에 속하는 漢字는 甲類보다 複雜한 反射形을 보여주지만 綿密히 檢討해 보면 의외로 單純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所"를 除外하고 나면 魚韻에 속하는 漢字는 모두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에 "ㅓ"를 보이고 있으며 登韻에 속하는 漢字는 so乙類와 zo乙類에 通用되는 "賊"을 除外하면 모두가 "ㅡ"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內容을 좀더 壓縮하여 各韻母에 對應하는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別頻度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甲類				乙類						
韻	o	u	계	韻	ə	i	a	ʌ	o	계
模	40	2	42	魚	28				1	29
豪	2		2	登	2	18				20
虞	1	1	2	蒸		1				1
侯		6	6	魂					2	2
多	1		1	咍			4	2		6
鍾	5		5							
계	49	9	58	계	30	19	4	2	3	58

이 結果야말로 o段母音 甲類와 乙類의 性格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中古漢語의 模韻에 속하는 대부분의 o段甲類音假名이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 "ㅗ"에 對應될 뿐 아니라, 散發的으로 豪, 虞, 侯, 多, 鍾韻에 속하는 甲類의 나머지 音假名 역시 "ㅗ" 내지 "ㅜ"에 對應된다는 事實은 우선 o段母音甲類를 支配한 音聲資質이 적어도 後舌性과 圓脣性이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이와는 對照的으로 魚韻이나 登韻에 속하는 대부분의 o段乙類音假名이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 "ㅓ" 또는 "ㅡ"에 對應될 뿐 아니라, 散發的으로 蒸 또는 咍韻에 속하는 乙類의 나머지 音假名이 거의 "ㅡ" 내지 "ㅏ"나 "·"에 對應된다는 事實은 o段母音乙類를 支配한 音聲資質이 적어도 中舌性과 非圓脣性이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o段母音 甲類와 乙類의 系列性(class : 허의 前後關係)과 圓脣性 有無는 거의 밝혀지지만, 段階性(degree : 허의 높이 또는 開口度)에 대해서는 약간의 推論이 더 必要하다.

먼저 o段母音甲類 音假名中에는 數的으로 微微하나마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 "ㅜ"에 對應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中古漢語 再構音으로 보더라도 虞韻이나 侯韻처럼 高位母音을 包含하는 약간의 漢字가 o段甲類表記에 利用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o段甲類의 音假名이 u段에 通用되는 경우도 얼마쯤 있었다. 이러한 몇가지 事實은 o段母音甲類가 高位母音 u에 어느 정도 가까운 母音이었음을 말해주는 根據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o段母音甲類의 調音位置는 段階上으로 正常的인 中位母音 o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聽覺的으로는 때때로 高位母音 u와 混同을 일으키는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o段母音甲類의 段階性은 IPA의 半閉口(half-close) 정도였던 것으로 理解된다. 이에 대하여 o段母音乙類는 原則的으로 다른 母音과의 共時的 通用을 보이지 않는 대신, 音節에 따라 魚韻 또는 登韻에 속하는 漢字를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條件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o段母音乙類에 뚜렷한 異音이 存立했다는 確證은 없다. 魚韻과 登韻이 音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理由는 o段乙類音節의 直接的인 音聲現實에 있었다기보다, o段乙類의 每音節表記에 알맞는 漢字가 어느 韻目에 들어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魚韻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音節에도 드물게나마 登韻 혹은 蒸韻이 利用되었다거나, 登韻을 原則으로 하는 音節에도 가끔 魚韻이 利用된 것은 魚韻과 登韻의 가까운 關係를 暗示하지만, 後代에 o段母音乙類가 甲類에 合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乙類는 中古漢語의 魚韻내지 韓國漢字音에 나타나는 音節主音 "ㅓ"에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문에 ko, go, zo, yo, ro乙類와 같은 音節은 魚韻으로 表記될 수 있었다. 그러나 so, to, do, no乙類와 같은 音節을 表記하기에 알맞는 漢字를 魚韻에서 찾기는 힘들었다. 이때문에 할 수 없이 鼻音 또는 入聲尾尾를 除外하고는 魚韻에 가장 가까운 登韻이 대신 利用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事情을 勘案한다면 o段母音乙類의 段階性을 단순히 高位와 中位의 中間쯤이라고 보기보다는 正常的인 中位母音 ə位置에서 段階上으로는 약간 윗쪽, 系列上으로는 약간 앞쪽이었다고 볼 수 있다. 中古漢語의 魚韻 推定音 -ɪə나 一部의 o段乙類音假名에 대한 韓國漢字音의 音節主音 "ㅡ"가 이와 같은 推定을 要求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o段母音乙類의 段階性 역시 o段母音甲類의 그것과 비슷한 半閉口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檢討를 綜合해 보면 萬葉音假名 o段母音 甲乙類의 音聲資質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理解된다.

	系列性	段階性	圓脣性
o段母音甲類	後舌	半閉口	圓脣
o段母音乙類	中舌	半閉口	非圓脣

이것은 물론 調音的 資質에 基準을 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轉寫資料가 聽覺的 資質과 關係가 깊으므로, 萬葉音假名에도 聽覺的 要素가 다분히 反映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o段音假名에 나타나는 例外的 存在나 特異

한 用法중에는 當時의 漢字音에 나타나는 聽覺的 要素에 그 原因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를 하나하나 立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 結 語

上代日本語의 音韻論的 硏究는 지금까지 中古漢語 再構音에 의한 萬葉音假名의 再構라는 節次를 통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母音體系에 대해서는 아직도 主張이 갈려 있으며, 특히 o段母音 甲乙類의 音韻論的 解釋에 根本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o段母音甲乙類의 差異는 韓國漢字音에 잘 들어나 있다. 비록 後代의 것이긴 하지만 韓國韓字音은 오랜 傳統을 이어받은 現實音이므로, 이를 中古漢語 再構音에 連結시켜보면 o段母音의 性格이 좀더 分明해진다. 그리하여 甲類는 後舌性, 圓脣性 그리고 半閉口性을 音聲資質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乙類는 中舌性, 非圓脣性 그리고 半閉口性을 音聲資質로 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이러한 結論은 o段音假名 자체에도 暗示되어 있다. o段音假名 甲類가 u段에 通用되었다는 사실은 o段母音 甲類가 u段母音처럼 後舌性과 圓脣性으로 이루어진 母音임을 暗示하는 동시에, 그 通用이 部分的이었다는 사실은 o段母音 甲類가 u段母音과는 달리 半閉口性으로 이루어진 母音임을 暗示한다. 이에 대하여 o段母音 乙類는 甲類와 通用되는 일이 없었으며, 脣音과 脣音性 轉移音 뒤에 配分되는 일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甲類와는 段階性을 같이 하지만, 系列性과 圓脣性은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自然스럽기 때문에, 乙類는 中舌性과 非圓脣性 그리고 半閉口性으로 이루어진 母音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音聲資質上의 差異는 甲乙類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絶對的인 價値를 지닌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母音體系를 論議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音韻論的 解釋을 여기에 되풀이 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두어야 할 問題가 하나 남아 있다. 그것은 韓國漢字音이 萬葉音假名의 音聲資質 糾明에 과연 有效한 存在일까 하는 점이다.

韓國漢字音은 基本的으로 切韻系 中古漢語를 母胎로 하고 있으나(有坂秀世 1957:307-309, 河野六郎 1968: 202-205, 朴炳采 1971: 294-298), 部分的으로는 中古漢語 이전 段階의 特徵을 보이는 수도 있다. 中世韓國語 이후의 單音節形態素 중에 發見되는 中古이전의 漢語音은 借用으로 看做되겠지만(金完鎭 1971: 94-114), 切韻系 中古漢語 이전의 古層을 反映하고 있는 特徵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指摘된 바 있다(朴炳采 1971: 298-299). 첫째, 止攝諸韻(開口)은 일반적으로 "ㅣ, ㅢ"인데, 齒頭音과 齒上音에서는[19] "ㆍ"로 나타나며, 魚韻은 일반적으로 "ㅓ, ㅕ"인데, 齒上音에서만은[20] "ㅗ"로

19) 「韻鏡」에 따르면 內轉第四開合 支, 紙, 寘韻의 齒音 4等, 內轉第六開 脂, 旨至韻의 齒音 4等, 內轉第八開 之, 止, 志韻의 齒音 4等이 여기에 該當된다.
20) 「韻鏡」에 따르면 內轉第十一開 魚, 語, 御韻의 齒音 2等이 여기에 該當된다.

나타나는 점이다. 둘째, 蟹攝의 祭韻3, 4等과 廢韻3等 및 齊韻專屬4等은 일반적으로 "ㅖ"를 示顯하는데, 祭韻 4等의 "蠏려, 筮·噬셔", 廢韻3等의 "刈·艾애", 齊韻專屬4等의 "睥·儷려, 妻쳐, 西·犀셔" 등에는 "ㅕ, ㅐ"로 나타나는 점이다. 셋째, 梁攝의 侵韻2等[21] 중 齒上音은 "ㅁ"으로 代置되었으며, 臻攝의 痕韻(1等開口)은 보통 "은"으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온"이 散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韓國漢字音은 15世紀이후에 이르러서야 文獻에 定着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中古漢語 또는 그 이전의 段階를 反映하고 있는 部分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단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中世韓國語의 音韻體系 특히 母音體系가 그대로 古代韓國語에 遡及된다는 條件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古代韓國語와 中世韓國語의 母音體系가 같았다는 것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前期中世韓國語와 後期中世韓國語의 母音體系는 크게 달랐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李基文 1971:137-138). 따라서 15世紀 이후의 韓國漢字音이 中古漢語 또는 그 이전의 段階에 그대로 遡及된다는 推論에는 아직 問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古事記」나 「日本書紀」는 百濟의 阿直岐와 王仁이 日本에 漢字를 傳한 時期가 3世紀末이라고 記錄하고 있으나,[22] 이 時期를 額面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이다. 「日本書紀」는 또한 諸國에 처음으로 國史를 두고 言事를 記錄한 것이 5世紀初라고 傳하고 있으나,[23] 當時의 日本人만으로 그러한 業務가 可能했을지는 疑心스럽다. 日本에서 漢字가 使用되기 始作한 時期는 5世紀頃으로 알려져 있지만[24], 6世紀初까지도 百濟의 五經博士가 日本에 派遣될 必要가 있을 정도였다거나,[25] 推古期(592—628)에

21) 原文에는 "3等"으로 되어 있으나 "2等"의 誤植일 것이다. 「韻鏡」의 內轉第三十八合 參照. 다만 「七音略」을 根據로 할때 內轉第三十八의 "合"은 "開"로 고쳐져야 한다고 한다. 龍宇純(1959). 「韻鏡校注」(臺北) p.274.

22)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即論語十卷千字文一卷併十一卷 付是人即貢進(「古事記」 中).

百濟王遣阿直岐 貢良馬二疋…(中略)…阿直岐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岐者阿直岐史之始祖也(「日本書紀」 應神紀十五年 : 284).

王仁來之 即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故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日本書紀」 應神紀十六年 : 285).

23) 始之於諸國置國史 記言事達四方志(「日本書紀」 履中紀四年 : 403).

24)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金石文 隅田八幡宮(和歌山縣) 人物畵像鏡의 銘文(5世紀中葉)과 船山古墳出土 太刀의 銘文(5世紀中葉)이 그 根據로 提示된다.

25) 百濟遣姐彌文貴將軍 … (中略) … 貢五經博士段楊爾 (「日本書紀」 繼體紀七年 : 513).

百濟遣州利即次將軍 …(中略)…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日本書紀」 繼體紀十年 : 515).

와서야 金石文이 부쩍 늘어나기 始作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5世紀初의 日本人들에게는 아직 漢字使用能力이 없었던 것으로 理解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무렵까지는 日本人의 文字生活이 百濟人을 爲始한 外來人의 助力없이는 不可能했다고 볼 수 있다. 萬葉假名의 萌芽期에 該當하는 이 時期가 百濟人과 같은 外來人의 影響下에 놓여 있었다는 事實은 韓國漢字音과 萬葉假名의 史的 關係를 단적으로 暗示한다. 실제로 韓國漢字音은 萬葉假名의 形成過程에 계속적으로 關與했을 가능성이 크다. 日本漢字音에는 "古韓音"이라고도 불리우는 特殊한 發音이 있는데, 이것은 百濟의 建國 이전에 韓族의 言語에 들어와 있던 上古漢語音이 傳해진 것으로 推定되며, 6~7世紀頃에 日本에 傳해진 中國 南朝의 漢字音, 소위 吳音도 百濟를 거쳐 傳해진 中古漢語音系統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龜井孝 1963 卷 2:138-139).

이러한 過程을 文化史的으로 吟味해 보는 것도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百濟의 阿直岐나 王仁과 같은 知識人들이 日本에 招請되어 간 것은 실상 4世紀後半 내지 5世紀初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때부터 大和朝廷은 繼續的으로 "新來의 才伎" 또는 "今來의 才伎"라고 불리우는 文化人·技術者들을 招聘해 갔다. 이들은 三韓時代의 北方的 漢·魏의 文化와 關係가 깊었을 것이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文化的 知識과 漢語도 上古末期의 狀態였으리라고 생각된다. 推古期遺文에 나타나는 漢字音의 特殊한 用法도 이 때에 받아들인 것으로 理解된다. 5世紀부터는 韓半島 특히 百濟에서 江南의 南方的 文化와 敎養을 익힌 知識人들이 日本에 건너가는 한편, 6世紀中葉(538)에는 日本이 佛敎와 같은 精神文化를 受容하기에 이르렀다. 7世紀中葉에는 다시 百濟의 滅亡(660)으로 많은 亡命客이 日本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치는 동안 百濟를 통한 漢文化와 漢語가 따라 들어갔을 것이며, 그것이 소위 6~7世紀의 吳音體系를 形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으로 大和朝廷은, 6世紀末에 天下를 統一하고(589) 中原의 長安에 都邑한 北方의 隋와도 交涉을 直接 始作하여 新文化 受容에 힘을 기우린다. 이 때에 隋·唐으로부터 받아들인 長安音이 소위 7~8世紀의 漢音體系를 形成한 것으로 보인다(牛島德次 1967:95-96).

「日本書紀」에는 百濟, 新羅 등과의 文化的 關係를 暗示하는 記事가 꼬리를 잇고 있는데,[26] 이와 같은 文化史的 過程과 아울러 생각할 때, 萬葉假名의

---

26) 爰新羅王波沙寐錦 即以微叱己波珍干岐爲質 仍齎金銀彩色及綾羅縑絹 載于八十艘船 令從軍官(仲哀紀九年 : 200).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 並來朝 時命武內宿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名池號韓人池(應神紀七年 : 276).

百濟王貢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應神紀十四年 : 283).

高麗國貢鐵盾鐵的(仁德紀十一年 : 323).

天皇召酒君 示鳥曰 是何鳥矣 酒君對言 此鳥之類 多生百濟 得馴而能從人 亦捷飛之掠諸鳥 百濟俗號此鳥曰俱知〈是今時鷹也〉乃授酒君令養馴(仁德紀四十三 : 355).

形成過程에 韓國漢字音이 影響을 끼쳤다고 보더라도 별로 無理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推古期遺文이나 初期的 萬葉假名이 三國時代의 漢字利用法과 머슷할 뿐 아니라, 三國의 固有名詞表記에 利用된 漢字가 萬葉假名에 一致되는 수가 많다는 事實(李崇寧 1955)도 兩者의 史的關係를 暗示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27]

筆者가 萬葉音假名의 音聲資質糾明에 韓國漢字音이 有效하다고 본 것은 실상, 위와 같은 文化史的 背景을 勘案할 때 다음과 같은 假定이 可能하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韓國漢字音에 中古漢語 또는 그 이전 段階의 古層이 反映되어 있으리라는 假定이고, 둘째는 韓國漢字音과 萬葉音假名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史的關係를 가졌으리라는 假定이다. 이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옳기만 한다면 韓國漢字音은 分明히 萬葉音假名의 音聲資質 糾明에 有效한 存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서울.

橋本進吉(1942). 「古代國語の音韻に就いて」 東京.

————(1949). 「文字及び假名遣の硏究」 東京.

————(1950). 「國語音韻の硏究」 東京.

————(1966). 「國語音韻史」 東京.

龜井孝(編)(1963—1966). 「日本語の歷史」 1—8. 東京.

南廣祐(1969). 「朝鮮(李朝)漢字音 硏究」 서울.

大野晋(1953). 「上代假名遣の硏究」 東京.

董同龢(1954). 「中國語音史」 臺北.

————(1968). 「漢語音韻學」 臺北.

藤堂明保(1969). 「漢語と日本語」 東京.

Lange, R.A.(1973). 「The Phonology of Eighth-Century Japanese」 Tokyo.

馬淵和夫(1970). 「上代のことば」 東京.

年遣使求良醫於新羅 秋八月 醫至自新羅 則令治天皇病 未經幾時 病已差也 天皇歡之 厚賞醫以歸于國(允恭紀三年 : 414).

天皇崩 時年若干 於時新羅王聞天皇旣崩 而奢慾之 貢上調船八十艘 及種種樂人八十…(中略)…悉奉御調 且張種種樂器 自難波至于京 或哭泣 或歌儛(允恭紀四十二年 : 453).

遣日鷹吉士 使高麗 召巧手者(仁賢紀六年 : 493).

27) 三國時代의 固有名詞表記에 利用된 漢字와 共通되는 萬葉音假名의 一端을 例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 °阿於于°伊, k- °加°可居°古高句°支°岐, g- 奇河岐, n- °那°奈尼°奴°乃°爾, t- °多°刀°都°豆°知°智, d- °陁度豆, r- °羅°禮魯婁里°留°琉球°利°理, m- 馬摩°毛°牟°武°彌未味, p- °波°婆°富°保浦°比卑°毗, b- 婆°夫毗, s- 娑西°蘇°須°斯, y- 耶也°由, w- 烏.

漢字 바로 앞에 °表를 한 것은 萬葉假名 전체를 통하여 가장 頻度가 큰 文字들인데, 이들이 三國의 固有名詞表記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馬淵和夫(1971).「國語音韻論」東京.
朴炳采(1971).「古代國語의 硏究」서울.
服部四郎(1976). 上代日本語のいわゆる“八母音”について.「日本學士院紀要」34—1.
森山隆(1971).「上代國語音韻の硏究」東京.
宋 敏(1975). 上代日本語의 母音體系.「日本學報」3.
———(1977).「日本語의 構造」서울.
松本克己(1975). 古代日本語母音組織考. ——內的再構の試み——「金澤大學文學部論集. 文學篇」22.
牛島德次(編)(1967).「中國文化叢書 1. 言語」東京.
有坂秀世(1955).「上代音韻攷」東京.
———(1957).「國語音韻史の硏究」東京.
李基文(1971).「訓蒙字會硏究」서울.
———(1972).「改訂國語史槪說」서울.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2.
周法高(1963).「中國語文學論幾」臺北.
———(1974).「中國語言學論文集」臺北.
河野六郎(1968).「朝鮮漢字音の硏究」天理.